

1-26. 장미흰각지벌레(진딧물아목, 각지벌레과)의 분류학적 재검토

권기면*, 한만중, 이용현¹

농업과학기술원 농업해충과, ¹국립식물검역소 영남지소

한국산 흰각지벌레속(*Aulacaspis* Cockerell, 1893)은 백(1978)에 의해 3종이 기록되어 있는데, 그 중 장미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종은 장미흰각지벌레(*A. rosae* Bouché, 1834)로 알려져 왔다. 한국산 흰각지벌레속의 동정을 위해 농업과학기술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1976~1977년의 표본 9점과 1998~2001년에 채집한 208점의 표본을 확인한 결과, 장미흰각지벌레는 돌가시나무(*Rosa wichuraiana* Crep.), 산딸기(*Rubus crataegifolius* Bunge), 명석딸기(*Rubus parvifolius* L.), 장딸기(*Rubus hirsutus* Thunb.)에서만 채집된 것이 확인되었다. 장미(*Rosa hybrida* Hort.)에서 채집한 표본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 각진장미흰각지벌레(신칭: *A. rosarum* Borchsenius, 1958)였다. 따라서 기존에 장미의 주요 해충으로 알려져 있던 장미흰각지벌레를 각진장미흰각지벌레로 정정 보고하며, 정확한 종 동정을 위해 장미흰각지벌레와 각진장미흰각지벌레 2종에 대한 형태적 차이점을 비교하고, 검색표를 작성하였다. 각진장미흰각지벌레는 몸이 상대적으로 길며, 머리 부분의 모서리가 뚜렷하게 각을 이루고, 등면 2번째 배마디의 아중부에 4~9개의 분비관이 있는 것이 장미흰각지벌레와 다르다.